

코오롱, PDP용 감광소재 사업 첫발!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확대 ... 2003년 IT소재 필름 매출 350억원 예상

코오롱이 PDP용 감광성 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코오롱은 2년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2003년 7월 PDP 격벽 형성용 및 ITO(Indium Tin Oxide) 전극 형성용 DFR(Dry Film Photo Resist) 개발에 성공했다고 9월1일 발표했다.

코오롱은 필름 형태뿐만 아니라 PDP 회로 보호용 액상 감광제(상표명 Photomaster)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그밖에 3-4종의 PDP용 소재의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공정 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LG필립스로부터 노트북용 TFT-LCD용 광학산 필름에 이어 모니터용 광학산 필름 및 프리즘 보호 필름의 품질을 승인받고 납품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및 타이완 CMO에는 품질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 전자재료 메이커인 TOK가 독점 공급해 오던 국내 PDP용 DFR 시장에서 TOK와 코오롱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코오롱은 PCB 및 반도체 리드프레임에 사용되는 감광성 필름에 이어 PDP용 소재로 적용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TFT-LCD용 필름의 매출 증가와 함께 IT 소재 필름의 매출을 2002년 230억, 2003년 350억, 그리고 2005년에는 550억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2>